

시민호흡권 개선 위한 흡연부스 운영방안

김진아

**시민호흡권 개선 위한
흡연부스 운영방안**

연구책임

김진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진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흡연부스 관리·규제 법적근거 마련 필요 분리형 금연정책으로 시민호흡권 개선해야

흡연구역 지정,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공통된 의견

최근 건강과 환경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흡연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발표되면서 흡연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방침은 기본적으로 ‘금연’을 지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크게 변화하지 못하였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율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길거리 흡연구역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흡연구역의 지정이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 시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금연구역의 지정보다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의 지정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흡연구역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관리·감독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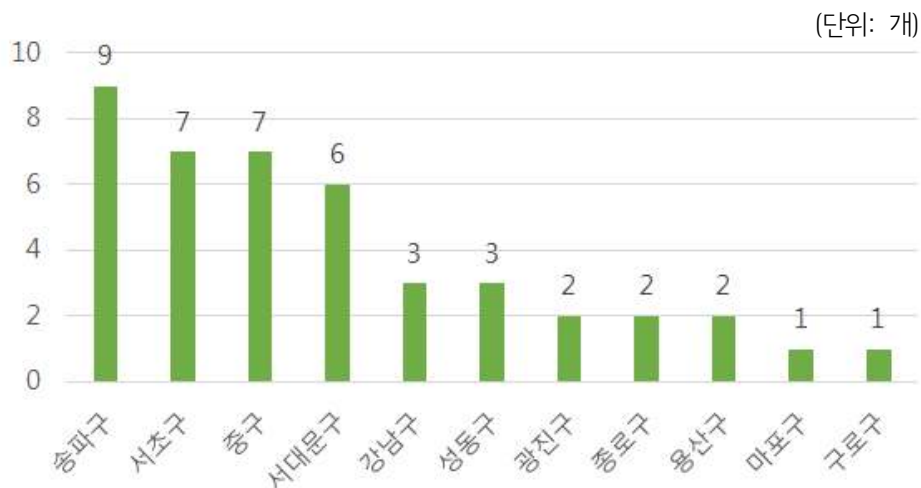
현재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의 조례·시행규칙 내에 흡연구역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실정이며, 흡연구역의 설치·운영은 대부분 관리자의 자율에 맡겨진다. 흡연구역 관련 법적 규정의 미비는 흡연구역 설치·운영의 관리감독 및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거나 흡연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18,485곳이지만, 흡연구역은 단 79곳에 불과하며 민간설치 흡연구역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내에 설치된 흡연시설은 총 43개로, 설치된 흡연시설의 1/3만이 폐쇄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부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직장인과 대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송파구, 서초구, 중구, 서대문구 순으로 흡연부스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서울시 내 유형별 흡연시설

부스형태	흡연부스의 수
개방형	28개
폐쇄형	4개(중구에만 설치)
완전폐쇄형	11개 (용산구(2), 광진구(2), 마포구(1), 서초구(6))
합계	43개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그림 1] 서울특별시 지역별 흡연부스 수

실태조사 결과 흡연부스 외부 흡연이 가장 큰 문제

서울시 흡연부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내에 설치된 43개 흡연부스 중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과 을지로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총 2곳의 흡연부스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상당수의 흡연자가 흡연부스 내부가 아닌 흡연부스 근처의 외부에서 흡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흡연부스 외부를 비롯한 흡연구역 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흡연부스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부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나타났다.



[그림 2] 롯데백화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말)



[그림 3]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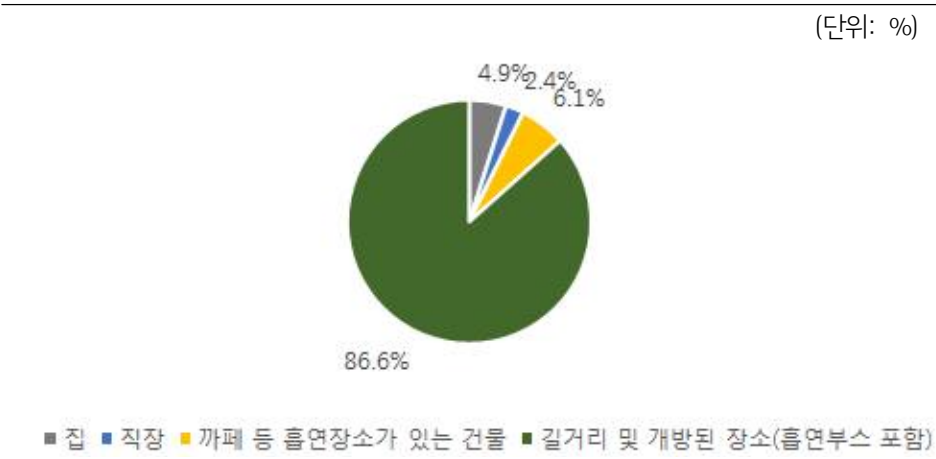
서울시민 다수가 흡연구역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부스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서울시민은 흡연구역을 관리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5%가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간접흡연은 다음 [그림 4-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길거리 등의 개방된 장소에서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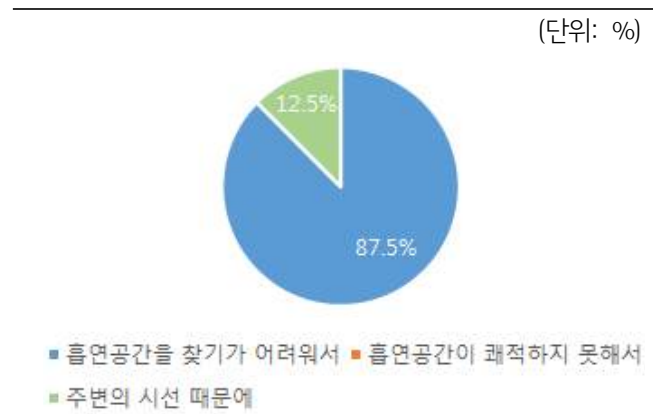
[표 2] 비흡연자 간접흡연 경험률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97.5%
아니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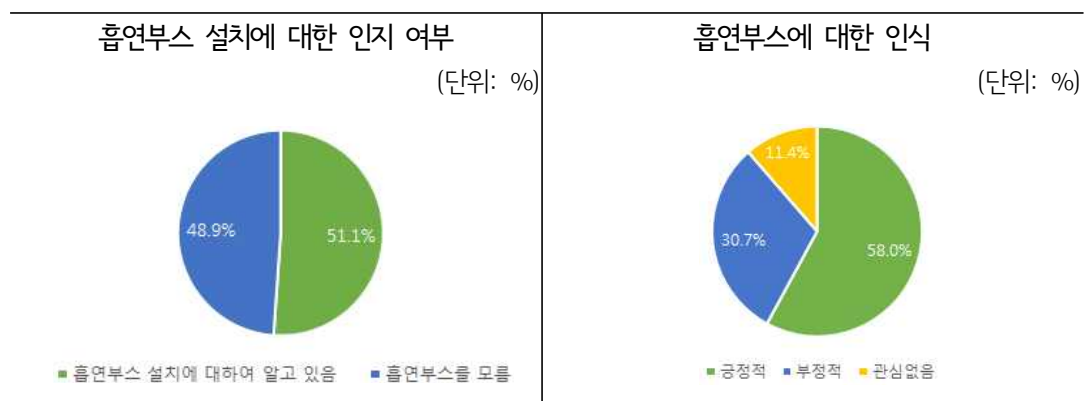
[그림 4] 간접흡연을 경험한 공간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흡연자 또한 흡연공간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흡연 장소 이용 시에 흡연공간을 찾기 어렵고(87.5%), 주변의 시선이 신경쓰여서(12.5%)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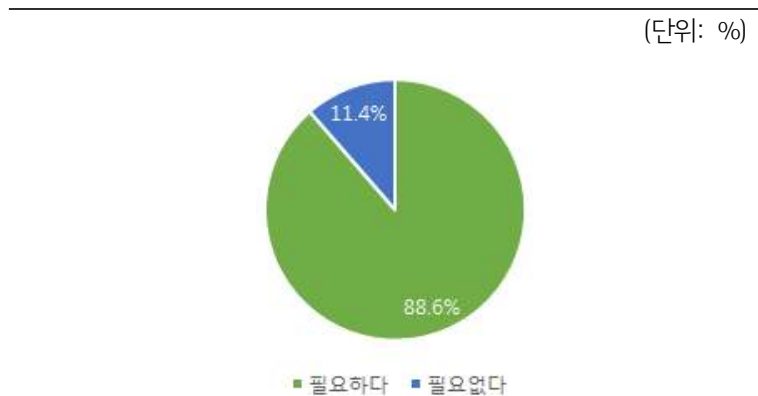
[그림 5] 흡연장소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이유

서울시 내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와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그림 6>과 같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이 흡연부스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흡연부스를 제대로 목격하였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또한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울시민은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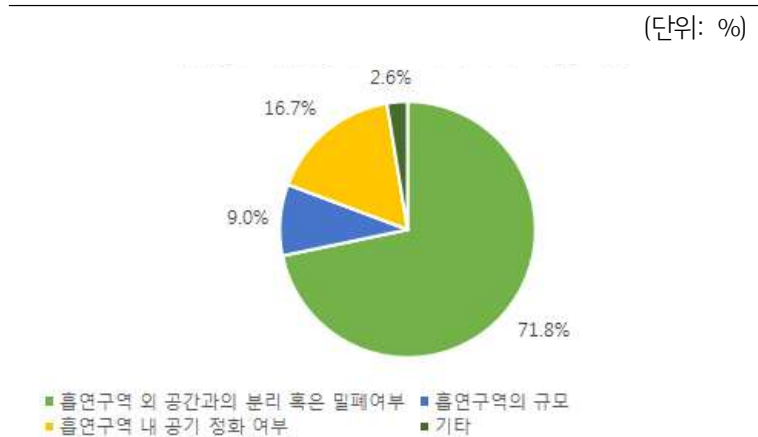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내 흡연부스에 대한 인식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흡연부스의 설치 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그림 8]과 같이 흡연구역 외 공간과의 분리 혹은 밀폐 여부(7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 필요성



[그림 8] 흡연부스 설치 시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항

해외 각국은 흡연구역 법적 규제 도입 확대 중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소비와 담배연기 노출로 발생하는 건강문제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바코 프리 이니셔티브’(Tobacco Free Initiative)를 제시하고,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발표하였다. FCTC는 다양한 국가가 모여 흡연과 간접흡연의 규모·패턴·결정요인·결과 등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도록 요구하며, 흡연에 관한 각종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더 효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구역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흡연구역’(DSR, Designated Smoking Room)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글래스고우시는 시의회에서 흡연구역의 크기·면적·수용력·지정된 공공장소의 인구 수용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시에서 기준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흡연구역의 설치 규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즉, 흡연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싱가포르는 FCT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소유의 지정흡연구역을 오차드거리에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오차드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8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흡연구역 지정은 흡연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흡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금연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형 금연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리핀은 2018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26호를 발표하였으며, 지정흡연구역 관련 규정을 매우 세세하게 명시하였다. 그에 따라 밀폐된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고, 지정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정책제언: ‘분리형 금연정책’ 추진으로 시민호흡권 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흡연구역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흡연구역의 추가 설치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 흡연구역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흡연구역 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민의 흡연부스 관련 법적 규정 확립 및 설치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먼저 흡연구역의 설치·관리 전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흡연부스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흡연구역 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흡연부스의 설치·관리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흡연부스의 설치장소와 이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되도록 흡연부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현재와 같은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흡연구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담배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흡연부스의 수를 늘려 주요 중심가에 설치·관리하는 등 ‘분리형 금연 정책’을 시행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서울시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3
02 서울시 내 흡연부스 운영현황	6
1_서울시 내 흡연공간 관련 규정	6
2_서울시 내 흡연시설 현황	8
3_서울시 내 흡연시설 이용 실태	10
03 선행연구 분석	18
1_보건학적 측면의 흡연행태 관련 연구	18
2_기술적 측면의 흡연시설 설치 관련 연구	21
2_정책적 측면의 흡연시설 관련 연구	24
04 서울시 흡연부스 관련 시민 설문조사	28
1_설문조사 개요	28
2_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34
3_서울시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	36
4_서울시 내 흡연부스 설치 관련 견해	40

05 해외사례분석	46
1_흡연구역에 대한 국제기준	46
2_국가별 공공장소 흡연 제한 및 흡연부스 규정 사례	48
06 정책제언	54
1_흡연부스에 관한 시민의 요구	54
2_분리형 금연정책으로의 전환	55
참고문헌	57

표

[표 2-1] 서울시 내 흡연공간 관련 규정	7
[표 2-2] 서울시 내 유형별 흡연부스	9
[표 2-3]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	11
[표 2-4] 을지로입구 흡연부스 이용 실태	14
[표 3-1] 흡연행태와 관련한 선행연구 목록	19
[표 3-2] 흡연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선행연구 목록	22
[표 3-3] 흡연정책 관련 선행연구 목록	25
[표 4-1] 흡연부스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개요	28
[표 4-2]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관련 질문 1	34
[표 4-3]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관련 질문 2	36
[표 4-4]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39
[표 4-5]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39
[표 4-6]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타 사유	40
[표 4-7] 흡연부스와 관련한 시민들의 기타 요구사항	43
[표 5-1] FCTC에서 제시한 실외흡연실 가이드라인	46
[표 5-2] FCTC에 따른 지정흡연구역(DSR) 규정	47
[표 5-3] 서울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2017)	48
[표 5-4] 필리핀 지정흡연구역(DSA) 설치 규정	51

그림

[그림 2-1] 서울시 내 금연구역 현황	8
[그림 2-2] 서울시 내 흡연구역 현황	8
[그림 2-3] 서울시 지역별 흡연부스 수	9
[그림 2-4] 롯데백화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말)	12
[그림 2-5] 롯데백화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중)	12
[그림 2-6]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말)	14
[그림 2-7]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중)	15
[그림 2-8]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의 문제점	15
[그림 4-1] 설문 대상자의 개별 특징	29
[그림 4-2] 설문조사지(1)	31
[그림 4-3] 설문조사지(2)	32
[그림 4-4] 설문조사지(3)	33
[그림 4-5] 흡연 및 간접흡연경험 공간	35
[그림 4-6] 흡연장소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이유	36
[그림 4-7] 서울시 내 흡연부스 인지 수준	37
[그림 4-8] 서울시 내 흡연부스에 대한 인식	38
[그림 4-9]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 필요성	41
[그림 4-10] 흡연부스 설치 시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항	42
[그림 5-1] 싱가포르 오차드거리에 설치된 흡연부스	49
[그림 5-2] 필리핀 지정흡연구역 모습	51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

최근 건강과 환경에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흡연이 각종 암과 결핵,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은 물론 당뇨 및 발기부전·면역기능 약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발표¹⁾되면서, 흡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침 또한 기본적으로 ‘금연’을 지향하여 왔다. 2003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직·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교육·홍보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금연 관련 조사·연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0년에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등 사업소에서 전면금연을 시행하고 담뱃값을 2,000원 일괄 인상하였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 수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지만, 정부의 세수 또한 크게 늘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017년 기준 39.3%로 2015년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으며²⁾,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 또한 계속되는 실정이다. 여전히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 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비판하고, 흡연자들은 부족한 흡연공간으로 인한 흡연권 침해를 호소한다.

1) 미국 보건복지부(2016)

2) 2014년 43.1%였던 우리나라 19세 성인의 흡연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39.4%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담배가격 인상의 충격이 완화되면서 2016년에는 40.3%로 오히려 소폭 반등하였다. 반면 2017년에는 39.3%로 다시 1.0% 소폭 감소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2017년부터 흡연경고그림이 보다 실질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2) 흡연구역 지정 및 운영 확대의 필요성

최근 각종 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중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간접흡연의 위험을 둘러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길거리 흡연구역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흡연구역의 지정이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 대부분 시민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³⁾. 실제로 서울시에서 2015년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피해장소는 길거리가 6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흡연구역을 적절히 지정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흡연자 또한 흡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근에는 금연구역의 지정보다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의 지정을 더 중요시하는 실정이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이 연구는 시민의 호흡권을 보장할 수 있는 흡연부스의 설치를 위하여 먼저 서울시 내 흡연부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재 서울시 내에 설치된 흡연시설의 현황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현장조사를 수행해 서울시 내 흡연시설의 이용 실태를

3)

구분	길거리 흡연구역 조성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흡연자	77.0	23.0
비흡연자	80.6	19.4
합계	79.9	20.1

자료: 리얼미터(2015)

확인하였다. 또한, 흡연시설의 설치 및 흡연정책과 관련한 각종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행 흡연부스 설치 기준 및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흡연·간접흡연 실태, 흡연구역 인식, 흡연부스 설치에 관한 견해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흡연부스에 관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흡연부스 관련 정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흡연구역의 국제기준과 국가별 흡연 관련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현황 및 선행연구분석, 설문조사, 해외사례분석의 내용을 기반으로 서울시에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흡연부스의 설치·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현행 금연정책을 분리형 금연정책으로 전환하고 건강한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민의 호흡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흡연부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존의 기준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보고, 시민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흡연부스와 관련한 시민의 니즈를 파악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 가능한 흡연구역의 조성을 위하여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흡연부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02

서울시 내 흡연부스 운영현황

- 1_서울시 내 흡연공간 관련 규정
- 2_서울시 내 흡연시설 현황
- 3_서울시 내 흡연시설 이용 실태

02 | 서울시 내 흡연부스 운영현황

1_서울시 내 흡연공간 관련 규정

현재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흡연구역 안내판의 크기와 모양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흡연구역 자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다음 <표 2-1>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8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의 규모·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과 위치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흡연구역에 통풍, 즉 공기정화가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환기시설 등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 흡연구역의 설치·운영이 관리자의 자율에 맡겨진다는 점이다. 이는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대상으로는 모양·크기·설치방법·경계의 표시방법 등 세분화된 규칙이 정해진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흡연구역에 관한 법적 규정의 미비는 결국 흡연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불가능으로 연결된다.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관리자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엄격하게 관리·규제하기란 불가능하며, 규제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시설 확충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보건소에 흡연구역만을 따로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규제 기준이 없어 흡연구역 점검은 금연구역을 점검할 때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서울시 내 흡연공간 관련 규정

항목	내용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8조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 조례(www.law.go.kr)

2_서울시 내 흡연시설 현황

2018년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18,485곳인 반면 흡연구역은 단 7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설치 흡연구역은 파악조차 거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000여 곳에 달하는 금연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1/3 수준으로, 2017년 12월에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흡연카페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2-1] 서울시 내 금연구역 현황



[그림 2-2] 서울시 내 흡연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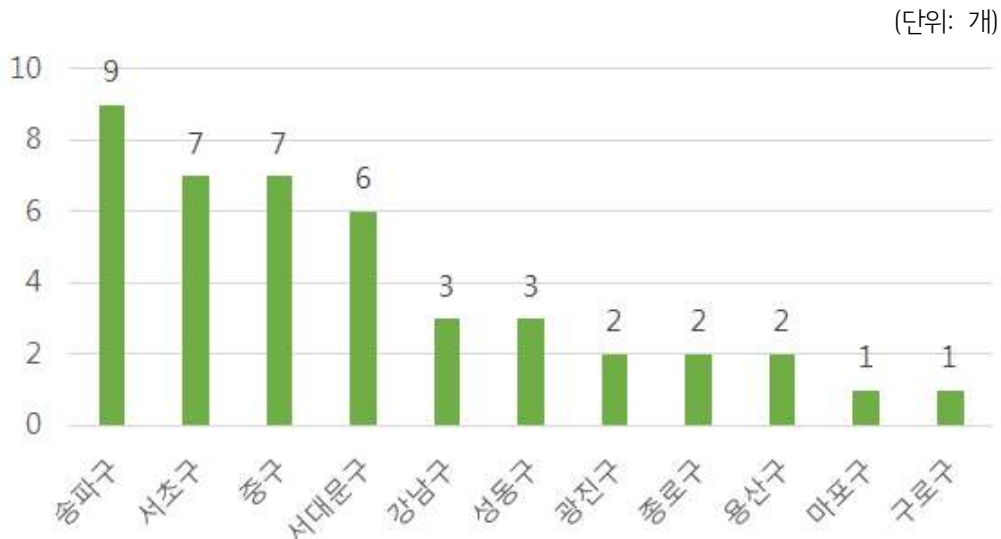
현재 서울시에는 총 43개의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흡연시설 중 28개는 개방형이며, 11개의 완전폐쇄형을 포함한 폐쇄형 흡연시설은 15개뿐이다. 즉, 서울시에 있는 흡연시설의 단 1/3만이 폐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폐쇄형 흡연시설 11개의 분포를 살펴보면, 용산구 2곳, 광진구 2곳, 마포구 1곳, 서초구 6곳으로 서초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쇄형 흡연시설은 모두 중구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개방형이 아닌 흡연시설은 대부분 중구와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서울시 내 유형별 흡연부스

부스형태	흡연부스의 수
개방형	28개
폐쇄형	4개(중구에만 설치)
완전폐쇄형	11개 (용산구(2), 광진구(2), 마포구(1), 서초구(6))
합계	43개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흡연부스의 지역별 분포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송파구에 설치된 흡연부스의 숫자가 9개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서초구, 중구, 서대문구 순으로 흡연부스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직장인과 대학생이 밀집된 지역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그림 2-3] 서울시 지역별 흡연부스 수

3_서울시 내 흡연시설 이용 실태

서울시 흡연부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내에 설치된 43개 흡연부스 중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과 을지로입구역 근처에 설치된 총 2곳의 흡연부스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2018년 8월 18일~19일, 8월 22일~8월 23일, 9월 6일~9월 7일, 9월 8일~9월 9일, 각각 주중 4일과 주말 4일간 시행하였다. 현장조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이용자의 숫자를 확인하고, 이용시간대별 평균 이용자 수를 확인하였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출근시간 이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10시부터 12시까지, 다수 직장인의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이후 오후 시간대인 13시부터 15시까지와 15시부터 17시까지, 저녁 시간대인 17시부터 19시까지로 구분하여 총 5개로 구분하였다. 다른 시간대와 달리 점심시간에는 흡연부스 주변 직장인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여 1시간으로 구분하였다.

1)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

먼저,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 흡연부스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롯데백화점 본점 앞의 흡연부스의 주중·주말 평균 이용자 수는 오전과 저녁 시간대를 제외하면 큰 편차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부스를 시민과 인근 직장인은 물론, 관광객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점심시간대로, 주중에는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1.4~1.6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평균 이용자 수가 주말의 평균 이용자 수보다 많은 시간대는 오전 및 점심식사 시간, 저녁식사 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시간대에는 시민·관광객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반면 해당 시간대에는 인근의 직장인도 흡연부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용자 남녀성비는 평균 9:1에서 8:2 수준이며, 여성 흡연자는 인근 백화점을 비

롯한 다양한 업계의 직장인이나 관광객으로 추정되었다.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당수의 흡연자가 흡연부스 내부가 아닌 흡연부스 근처의 외부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림 2-4>와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연부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발견되었다. 개방형 흡연부스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 등 오염물질은 비흡연자 시민의 민원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흡연부스 외부의 흡연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3]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

(단위: 명)

이용시간대	평균 이용자 수		성비		주요 이용계층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10:00~12:00	20	14	9:1	9:1	시민 직장인 관광객	시민 직장인 관광객
12:00~13:00	32	28	9:1	8:2	시민 직장인 관광객	시민 직장인 관광객
13:00~15:00	22	25	8:2	8:2	시민 직장인 관광객	시민 직장인 관광객
15:00~17:00	22	22	9:1	9:1	시민 직장인 관광객	시민 직장인 관광객
17:00~19:00	18	15	8:2	8:2	시민 직장인 관광객	시민 직장인 관광객



[그림 2-4] 롯데백화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말)



[그림 2-5] 롯데백화점 앞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중)

2)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 실태

을지로입구역 근처의 흡연부스 이용 실태는 <표 2-4>와 같다. 이곳 흡연부스는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의 흡연부스와 달리 이용 날짜별·시간대별로 평균 이용자 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가 역과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있다는 점, 해당 부스 옆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인근 지역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 대부분 흡연자가 가까운 골목이나 빌딩 사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점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주말에는 부스 옆 공사장 노동자와 시민은 물론 근처의 직장인조차 거의 이용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평균 2~5명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스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실정이었다.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 부스와 마찬가지로 점심식사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점심식사 시간대의 평균 이용자 수는 20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사용자가 거의 없는 오전·오후 시간대에 견줘 거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평균 이용자 수는 점심식사 시간대를 포함해도 모두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계층은 인근 직장인과 공사장 노동자로 판단되었으며, 롯데백화점 본점 앞 흡연부스와는 달리 여성흡연자는 찾기 어려웠다. 이용자 성비도 남성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흡연자가 선뜻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을지로입구역 근처의 흡연부스 또한 롯데백화점 본점 앞 흡연부스와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이 흡연부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흡연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그림 2-8>과 같이, 다수의 흡연자가 부스 내부에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흡연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흡연부스 근처 빌딩 사이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많아, 흡연구역 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표 2-4] 을지로입구 흡연부스 이용 실태

(단위: 명)

이용시간대	평균 이용자 수		성비		주요 이용계층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10:00~12:00	5	3	10:0	10:0	직장인 공사장 노동자	시민 공사장 노동자
12:00~13:00	20	8	10:0	10:0	직장인 공사장 노동자	직장인 시민 공사장 노동자
13:00~15:00	14	5	10:0	10:0	직장인 공사장 노동자	시민 직장인 공사장 노동자
15:00~17:00	12	2	10:0	10:0	직장인 공사장 노동자	시민 공사장 노동자
17:00~19:00	8	2	10:0	10:0	직장인 공사장 노동자	시민 공사장 노동자



[그림 2-6]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말)



[그림 2-7]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 실태(주중)



[그림 2-8] 을지로입구역 근처 흡연부스 이용의 문제점

03

선행연구 분석

- 1_보건학적 측면의 흡연행태 관련 연구
- 2_기술적 측면의 흡연시설 설치 관련 연구
- 3_정책적 측면의 흡연시설 관련 연구

03 | 선행연구 분석

1_보건학적 측면의 흡연행태 관련 연구

흡연부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보건학적 측면에서 흡연의 행태 및 피해를 설명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의 흡연부스를 개선한 형태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제도·정책적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설립·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건학적 측면에서 흡연의 행태와 피해를 살핀 연구는 대부분 특정장소나 공간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시에 등록된 실외 흡연부스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흡연부스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윤지, 이기영, 2017), 전국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외부의 실내공간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대학생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 및 현행 금연정책을 평가한 연구(김성렬 외, 2013), 미국 켄터키주의 대학을 대상으로 금연정책이 시행 중인 캠퍼스 경계와 인접한 보도에서의 흡연실태 및 실외 간접흡연 수준을 측정하고 금연캠퍼스 정책을 논의한 연구(조혜리, 이기영, 2012), kyobo시의 지정흡연구역을 대상으로 공기 질을 측정하고 실외흡연구역이 간접흡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실외흡연구역의 오염물질 정화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야 함을 제시한 연구(Yamato H. et al. 2013) 등은 모두 흡연부스 혹은 흡연공간 내외에서의 오염물질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개선점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특정 공간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흡연행태 및 간접흡연의 피해를 살핀 연구도 존재한다. 간접흡연이 사무실 내의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대도시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측정한 연구(백성옥 외, 2000), 공무원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자의 금연구역 내 흡연양상

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백운자 외, 2000) 등이다. 이 외에 국내의 흡연을 및 간접 흡연 노출 실태 등을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간접흡연 실태와 비교한 연구(최옥희 외, 2010)도 있다.

[표 3-1] 흡연행태와 관련한 선행연구 목록

연구자	발행연도	내용
김윤지 이기영	2017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실외 흡연부스 40곳을 대상으로 간접 흡연 노출 수준 지표인 PM2.5 수준을 측정한 결과, 흡연부스 내부의 평균 PM2.5 농도가 외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전폐쇄형이 다른 형태에 비하여 흡연부스 내부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외의 오염물질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형태는 개방형이었으며, 완전폐쇄형은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완전폐쇄형은 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 노출 수준을 높인다는 점, 개방형은 실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흡연부스 외부의 농도가 실외 흡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흡연부스의 적절한 설치 및 흡연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김성렬 외	2013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부(도서관, 학생회관, 화장실 복도 등이 포함된 건물, 오후 12~15시)와 외부(PC방, 당구장, 술집 등, 오후 18~21시) 실 내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 및 금연정책 진행의 경과를 평가함. 연구 결과 주요 흡연장소 근처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73\mu\text{g}$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교 내에 금연캠퍼스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조혜리 이기영	2012	캠퍼스의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켄터키 주에 위치한 대학을 대상으로, 캠퍼스 경계와 인접한 보도에서의 흡연 실태 및 실외 간접흡연 수준을 파악함. 측정 결과, 캠퍼스 인근의 보도에서의 흡연은 비흡연자와 보행자들이 순간적인 고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캠퍼스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연구자	발행연도	내용
Yamato H. et al.	2013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길거리 간접흡연의 출처가 실외 흡연구역임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을 제시함. Kyobo시의 지정흡연구역(Designated Smoking Area) 2곳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실외흡연구역의 오염물질이 주위 대기오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 그에 따라 실외흡연구역의 오염물질 정화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최옥희 외	2010	국내 흡연율 및 간접흡연에의 노출 실태, 간접흡연 감소를 위한 정책의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간접흡연 노출 실태를 비교함. 분석 결과, 성인 및 청소년의 실내 간접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고 미국·캐나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지표의 발굴 및 조사를 통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백성옥외	2000	대도시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환경담배연기, 즉 간접흡연 실태를 파악하고, 간접흡연이 사무실 내의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함. 분석 결과, 담배로 인한 오염물질의 농도는 단위면적 당 흡연개피 수와 비례관계에 있으며,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백윤자 정문숙 권진희	2000	공무원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자의 금연구역 내 흡연양상을 설문조사로 살펴보고, 관련 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금연 실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분석 결과,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흡연율이 68.3%로 나타났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율 또한 43%로 나타남. 흡연자 교육 및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을 위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2_기술적 측면의 흡연시설 설치 관련 연구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술적 측면에서 흡연부스 내·외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오염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연구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흡연부스가 적은 비용으로 단순하게 제작·설치된 환기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유해물질의 유입과 유출이 매우 쉬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권우택 외, 2017). 이는 금연구역의 관리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흡연공간 규정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흡연 및 금연정책(이원영 외, 2017)과 맞물려, 결국 기존의 흡연부스는 설치목표와 달리 혐오시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었다. 또한, 그에 따라 비흡연자의 흡연부스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물론 흡연자의 이용률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의 흡연부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자 대부분은 흡연부스 내·외의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방식을 도입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흡연부스를 제안하고 있다.

흡연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를 효율적으로 환기·살균처리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효율적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흡연부스(황재성 외, 2018),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탈취성비를 갖춘 흡연부스(권우택 외, 2017), 담배연기를 옥상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모델(김태훈 외, 2017), 광촉매와 필터로 구성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부스 내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흡연부스(김태영 외, 2016)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기존의 흡연부스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흡연부스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청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자를 올바른 흡연 장소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흡연부스(박찬열 외, 2017) 설치 방안을 제시하거나, 흡연자의 이용률을 높이면서도 흡연부스의 청결한 이용을 유도하는 흡연부스 및 부대시설의 디자인까지 제시하는(이샘·박경진, 2015; 양근영, 2017) 연구도 있다.

[표 3-2] 흡연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선행연구 목록

연구자	발행연도	내용
황재성 권진홍 김재용	2018	담배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존 흡연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흡연 시 발생하는 담배연기를 효율적으로 환기·살균처리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에너지의 사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흡연부스의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권우택 권이승 이우식	2017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탈취설비를 갖춘 친환경 흡연부스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유해물질의 제거효율과 효과를 평가함. 내부의 배경 농도, 설비를 가동하는 시점의 배출구 및 10분 후 흡연부스 내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탈취설비를 갖춘 흡연부스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김태훈 배시화 서상욱 최현철	2017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도 방지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위하여, 옥상으로 담배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수직 샤프트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 수직샤프트를 이용해 옥상으로 담배연기를 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샤프트에 흡연 전용 파이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함.
박찬열 외	2017	낮은 흡연부스 이용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실시간 청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자들을 올바른 흡연 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흡연부스 시스템을 제안함. 이 연구는 기존의 흡연부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흡연부스 이용률이 상승함은 물론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갈등 또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양근영	2017	담배연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흡연부스 디자인을 위하여, 흡연부스 인식조사와 디자인 선호도조사, 흡연부스와 관련한 감성어휘 분석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사용자 중심의 흡연부스 디자인을 제시하였음.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터미널과 역(기차·지하철 포함)에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밝은 색상의 알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고 내부 순환 필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연구자	발행연도	내용
이원영 외	2017	기존의 흡연부스 내 먼지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각 물질의 배출계수와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흡연부스 내에서 5명이 동시에 흡연을 할 때는 다중이용시설 내의 오염물질 농도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서울시 내 위험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김태영 외	2016	광촉매와 필터로 구성된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한 흡연부스 내의 공기질을 유해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이 최대 85.2% 향상되었으며, 미세먼지 제거 효율도 최대 89.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샘 박경진	2015	지정된 흡연구역 내에 설치된 휴지통의 이용률이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버리는 행위가 흡연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면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휴지통 디자인을 위해 형태와 색채의 특징적 요소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분석 결과, 휴지통의 디자인·색채의 변화가 이용자의 버리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용자의 긍정적인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Yamato H. et al.	2004	직장 내 효과적인 흡연부스 설치방법을 조사한 결과, 흡연부스에 배기 환기(exhaust ventilation)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함. 먼저, 담배연기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흡연부스 출입구 쪽 공기흐름 속도(airflow rate)를 0.2m/s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노동부생성 권고), 흡연부스 내 공기 집중도(concentration of environmental tobacco smoke)는 0.15mg/m ³ 이하로 유지해야 함.
김진범 황대성 박희성 정해영 김광영	2002	흡연공간에서의 환경담배연기(ETS)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 수치를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건물에 설치된 흡연공간 및 흡연공간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분석하여 과학적 흡연 시스템의 도출 가능성을 확인함.

3_정책적 측면의 흡연시설 관련 연구

흡연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전의 연구는 흡연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금연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정책과 유사한 관점에서 흡연구제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거나(한만주, 2006), 법령 분석 등을 기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구제 실태를 살펴보고 간접흡연구제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을 논의(김광수, 2009)하였다. 반면 최근의 연구는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조화, 즉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두 집단 모두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흡연정책·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독립형 흡연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이병호, 2013), 서울시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시민의 금연정책 불응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한 연구(김홍주 외, 2015), 혐연권과 흡연권을 함께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본 연구(이공주, 2018) 등과 같이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흡연정책'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표 3-3] 흡연정책 관련 선행연구 목록

연구자	발행연도	내용
이공주	2018	흡연권 보장과 및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흡연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하기 보다는 흡연권과 금연권을 함께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가 흡연권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흡연권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자기만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정책 또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하여 흡연권과 흡연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본 결과,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흡연자가 수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흥주 이은국 이강래	2015	서울시에서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불응’으로 보고, 시민의 이와 같은 불응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흡연정책의 제도적 문제와 시민의식의 문제점이 정책불응의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 불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흡연규제 정책의 제도적 보완과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함. 그에 따라 흡연규제 정책의 제도적 보완과 관련하여 흡연권과 흡연권의 조화가 가능한 정책과 현실적인 규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등을 이용한 인식의 개선으로 건전한 흡연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병호	2013	흡연공간 인식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독립형 흡연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를 시행함. 이를 기반으로 독립형 흡연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에 주변 환경 및 타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및 의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된 흡연공간을 설치하면 국민건강 향상 및 흡연을 감소,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화합 등의 직·간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연구자	발행연도	내용
김광수	2009	현행 법령에 따른 공공장소 흡연규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간접흡연규제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 등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 연구 결과,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한 실내 흡연규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실내에서의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그에 따라 법률의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흡연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흡연규제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대중교통, 대학 캠퍼스 등도 규제에 포함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만주	2006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 결과, 조문을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공익이 흡연권이라는 사익의 제한 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또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함께 생명권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상위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인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함.

04

서울시 흡연부스 관련 시민 설문조사

- 1_설문조사 개요
- 2_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 3_서울시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
- 4_서울시 내 흡연부스 설치 관련 견해

04 | 서울시 흡연부스 관련 시민 설문조사

1_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기간 및 방식

서울시 내 흡연부스와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2018년 8월 18일부터 2018년 9월 8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학 및 대형 커뮤니티 3곳의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을지로입구역 일대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150명, 오프라인 48명의 응답자 모두에게 설문조사 이후 경품을 제공하였다.

[표 4-1] 흡연부스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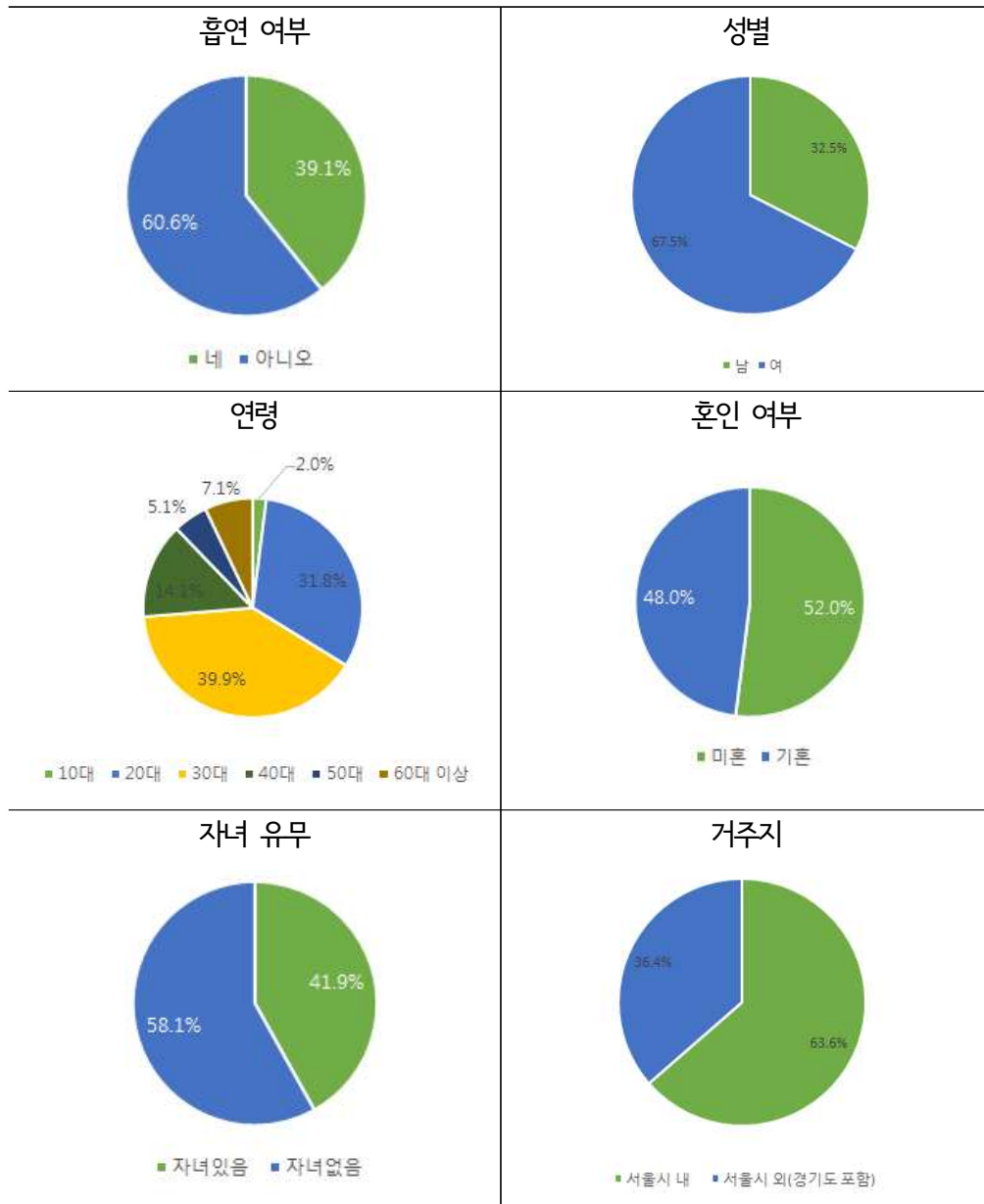
구분	흡연부스의 수
조사기간	2018.8.18~2018.9.8(총 3주간)
조사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조사장소	온라인 설문조사: 대학 및 대형 커뮤니티 3곳 오프라인 설문조사: 을지로입구역 일대
조사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오프라인 설문조사: 을지로입구역 일대 보행자

2) 설문 응답자의 특징

설문 응답자의 개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198명 중 60.6%에 해당하는 120명이 비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의 67.5%가 여성, 32.5%가 남성으로, 비흡연자 비율이 높은 여성이 설문에 많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대와 30대가 각각 31.8%, 39.9%로 가장 많으며, 40대가 14.1%로 3순위를 차지했다.

(단위: %)



[그림 4-1] 설문 대상자의 개별 특징

응답자의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미혼이 52.0%로 기혼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48.0%에 해당하는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58.1%, 자녀가 없는 경우는 41.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63.6%는 서울시 내에, 36.4%는 서울시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설문조사 문항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흡연 및 간접흡연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한 개인의 의식조사 측면의 문항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각각 흡연공간 이용과 간접흡연 경험을 물었다. 두 번째는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부스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제시된 질문으로, 흡연부스의 인지 및 사용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세 번째는 서울시 내 흡연구역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한 질문으로, 법적규정의 필요 여부와 흡연구역의 규정에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배부된 설문조사지의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그림 4-2>와 <그림 4-3>, <그림 4-4>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흡연부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

ID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흡연부스를 통한 시민호흡권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서울시민 안혜진·김진아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담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듣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흡연구역' 혹은 '흡연시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현재 서울시 내 길거리에 설치된 '흡연부스'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수치화되어 처리되며, 작은연구를 위한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응답해주신 개인적 답변 및 신변의 비밀 등은 절대로 보장됩니다.

더운 날씨에 바쁜 발걸음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위하여 응답에 협조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기간 : 2018년 8월 18일 ~ 9월 8일

■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진: 김진아(jina85110@gmail.com)

※ 서울특별시 내 흡연부스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문을 참고하시어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되는 각 설문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응답 소요시간은 3분 내외입니다. 응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내 흡연부스 현황

- 2018년 8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1/3이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흡연구역의 설치와 관련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으며,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총 43개의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스형태	흡연부스 수
개방형	28개
폐쇄형	4개 (중구에만 설치)
완전폐쇄형	11개 (용산구(2), 광진구(2), 마포구(1), 서초구(6))
합계	43개

[그림 4-2] 설문조사지(1)

I. 담배와 관련한 개인의 인식 조사	
문1	귀하께서는 흡연자입니까? ① 네 [☞ 문1-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1-4로 이동]
문1-1	귀하께서 주로 담배를 피우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집 ③ 카페 등 흡연장소가 있는 건물 ⑤ 기타 () ② 직장 ④ 길거리(흡연부스 포함)
문1-2	귀하께서 담배를 피우시는 장소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네 [☞ 문1-3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로 이동]
문1-3	흡연장소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불편이나 어려움을 느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흡연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③ 주변의 시선 때문에 ② 흡연공간이 쾌적하지 못해서 ④ 기타 ()
문1-4	[문1의 ②의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간접흡연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네 [☞ 문1-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로 이동]
문1-5	귀하께서 간접흡연을 겪어보신 주된 공간은 어디입니까? (※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집 ③ 카페 등 흡연장소가 있는 건물 ⑤ 기타 () ② 직장 ④ 길거리(흡연부스 포함)
II. 흡연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견해	
문2	현재 금연구역의 지정 외에 흡연에 대한 규제 혹은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금연구역 외에 흡연구역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문2-1로 이동] ② 필요없다 [☞ 문2-2로 이동]
문2-1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할 경우,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흡연구역 외 공간과의 분리 혹은 밀폐여부 ③ 흡연구역 내 공기 정화 여부 ② 흡연구역의 규모 ④ 기타 ()

[그림 4-3] 설문조사지(2)

[그림 4-4] 설문조사지(3)

2_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먼저, 담배와 관련한 개인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행태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경험을 확인하였다. 간접흡연 경험 관련 문항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흡연장소와 흡연행태 등을 묻는 문항은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간접흡연경험 관련

본인이 비흡연자라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간접흡연의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97.5%에 달하는 응답자가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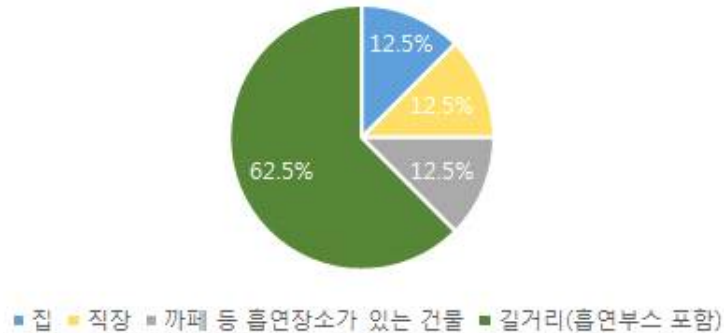
[표 4-2]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관련 질문 1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97.5%
아니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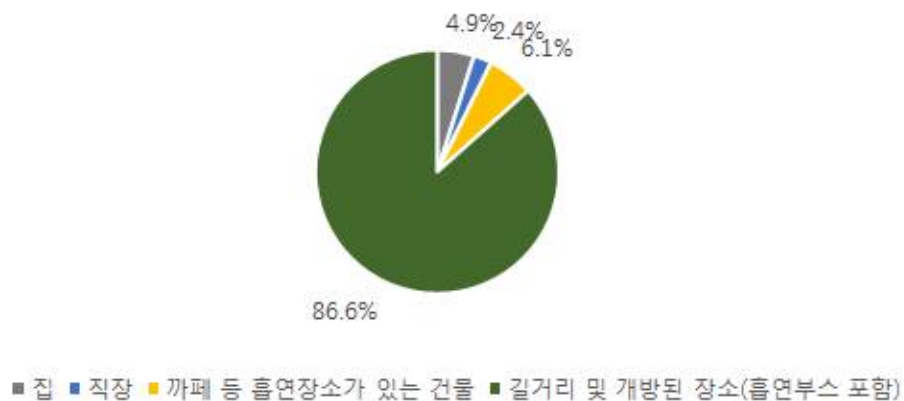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흡연 경험은 다음 <그림 4-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길거리 등의 개방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를 보면,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주된 공간은 ‘길거리 및 개방된 장소’가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간접흡연이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주로 흡연을 하는 장소’ 문항과 연결된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과반에 해당하는 62.5%가 흡연부스를 포함하는 길거리에서 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과 직장, 카페 등 흡연장소가 있는 건물 실내에서 흡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7.5% 수준으로, 대부분 흡연자가 개방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흡연자가 길거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주로 흡연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경험 또한 많을 수 밖에 없어 두 결과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

(단위: %)



간접흡연을 경험한 공간



[그림 4-5] 흡연 및 간접흡연경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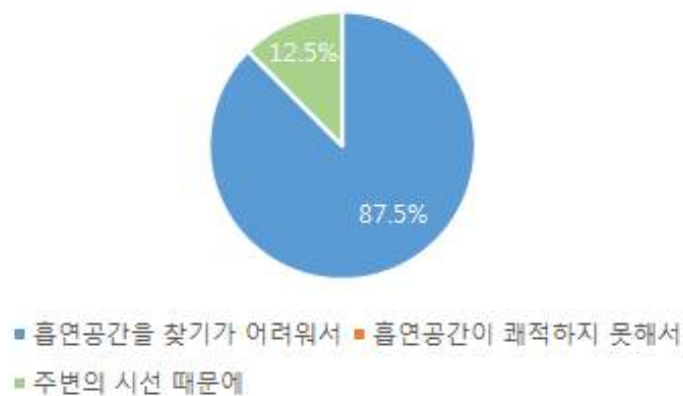
2) 흡연공간 관련

왜 다수의 흡연자가 규정된 흡연공간이 아닌 길거리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흡연자들에게 다음 <표 4-3>과 같이 흡연장소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 결과, 흡연자라고 밝힌 모든 응답자는 담배를 피우는 장소와 관련하여 불편 혹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장소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다음 <그림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연장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5%는 흡연공간을 찾기 어렵다고 느꼈으며, 일부(12.5%)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여, 흡연구역의 확충과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흡연 및 간접흡연 실태 관련 질문 2

담배를 피우는 장소와 관련하여 불편 혹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네	100.0%
아니오	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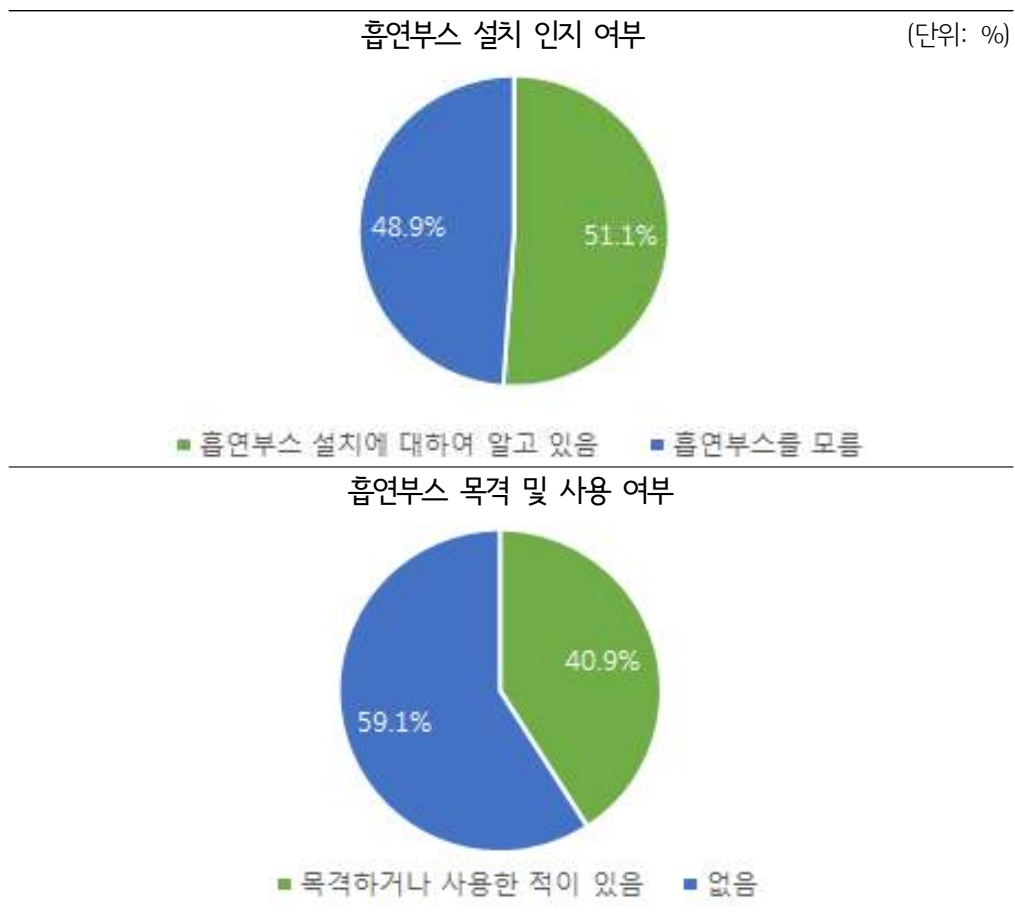
[그림 4-6] 흡연장소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이유

3_서울시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 설문조사는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흡연부스를 목격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1) 서울시 내 흡연부스 인지 여부

서울시 내에 설치된 흡연부스 인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림 <4-8>과 같이 흡연부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응답자와 설치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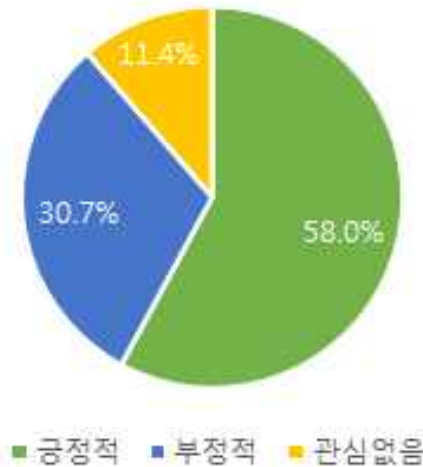
[그림 4-7] 서울시 내 흡연부스 인지 수준

이는 서울시민이 흡연부스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흡연부스를 제대로 목격하였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도 많지 않았다. 그림에 따르면, 서울시 내 흡연부스를 목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0.9%로, 전체 응답자의 약 60%는 흡연부스를 목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수의 서울시민은 흡연부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서울시가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흡연부스에 대한 인식

흡연부스에 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4-9>와 같다. 조사 결과, 과반에 해당하는 58.0%의 응답자가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0.7%, 무관심한 사람이 전체의 11.4%로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그림 4-8] 서울시 내 흡연부스에 대한 인식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에게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4-4>, <표 4-5>,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흡연자에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5.8%가 응답한 바와 같이, 이는 앞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흡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시민이 공감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흡연부스가 외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32.7%)도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 꼽혔다. 그 외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 점, 흡연부스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기타 해당 구역 내에서의 흡연만 허용하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표 4-4] 흡연부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이유	비율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55.8%
외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음	32.7%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생각	5.8%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음	3.8%
기타(해당 구역 내에서의 흡연만 허용하도록 규제 가능)	1.9%

반면,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다수(56.7%)는 흡연부스가 ‘외부와 제대로 차단되어 있지 않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그 외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13.3%)하거나, 숫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존재한다는 생각(13.2%), 설치된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10.0%) 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현재 흡연부스의 위치와 형태가 외부의 통행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5]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이유	비율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	13.3%
외부와 제대로 차단되어 있지 않음	46.7%
설치된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음	10.0%
숫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	13.2%
기타	16.8%

[표 4-6]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타 사유

-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흡연자의 건강에 더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허술하여 흡연자의 흡연권이 오히려 침해됨
 - 장소의 협소함, 공간부족, 미흡한 공기정화 등으로 건강에 위협이 됨
 - 흡연부스가 제대로 규제되어 운영되는 것 같지 않음
-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타 사유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현재 운영되는 흡연부스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흡연자의 건강에 더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또한, 흡연자 중에는 흡연부스의 공간 자체가 협소할 뿐 아니라 밀폐되어 있고,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어 흡연권도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장소의 협소함, 공간의 부족, 공기정화 시설의 미흡함 등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있었으며, 흡연부스가 제대로 규제되어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결국, 흡연부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대부분 흡연부스 공간의 부족과 운영상의 미흡함을 문제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가 이와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4_서울시 내 흡연부스 설치 관련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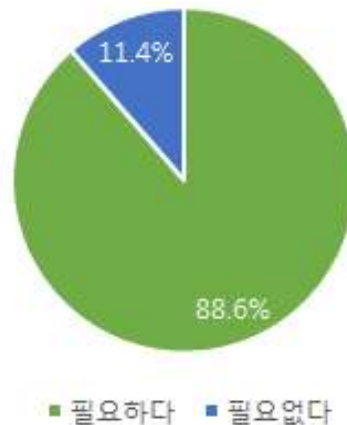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흡연부스 설치에 관한 견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로 흡연구역의 법적 규제 여부에 관한 시민의견을 들어보았다.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 필요 여부, 흡연구역 규정 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시민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 필요성

먼저,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이 필요 없다고 한 11.4%의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해당 응답자의 절반이 ‘흡연구역 외의 장소는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전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시민 역시 규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길거리나 공공장소가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이라는 전제 아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규제함으로써 길거리 흡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 필요성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충분	20.0%
금연구역 외의 장소는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전제	50.0%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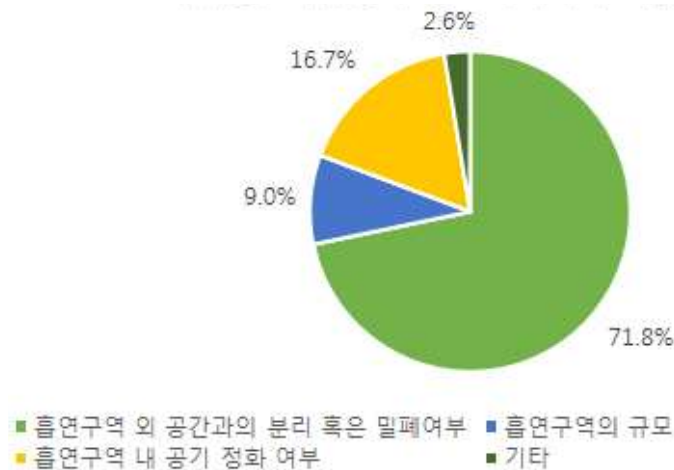
[그림 4-9]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 필요성

2) 흡연부스 설치 시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항

서울시민이 흡연부스의 설치 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다음 <그림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연구역 외 공간과의 분리 혹은 밀폐 여부’(7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흡연구역 내 공기정화 여부’(16.7%)와 ‘흡연구역의 규모’(9.0%) 등도 흡연구역 규정 마련 시에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은 흡연구역의 규정에서 ‘공기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그림 4-10] 흡연부스 설치 시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항

3) 기타 요구사항

이 외에 흡연부스와 관련한 시민의 기타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 4-7>과 같다. 먼저, 강남역 골목처럼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화 된 곳이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흡연부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연구역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흡연구역과 관련한 법적 규정 수립은 금연

구역 규제 강화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에도 주위 유동인구의 기준을 낮추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오픈형으로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부스 설치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흡연구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7] 흡연부스와 관련한 시민들의 기타 요구사항

-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벌금 실행) 이 필요(예: 강남역 골목의 경우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화 된 곳이 매우 많음)
 - 흡연부스의 수를 늘리고 확대하여 금연구역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흡연부스 설치 시 주변 유동인구 기준을 낮추고, 공기정화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흡연부스는 담배꽂초 및 기타 이물질 등의 위생 관리가 필요함
 - 암묵적 흡연구역에는 담배꽂초용 쓰레기통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단순히 격리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닌 흡연자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담뱃세로 걷는 세금의 규모에 비하여 흡연부스의 규모와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므로, 흡연부스의 수를 늘리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흡연부스 옆으로 지나갈 때 담배연기와 냄새가 지나치게 심해 길거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실제로 부스에 자리가 모자라 밖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도 많았음
 - 여성 전용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좋겠음
 - 흡연자도 본인 및 타인의 담배냄새를 맡거나 옷에 냄새가 배는 것을 꺼려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는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음
 - 흡연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오픈형으로 야외에 설치하는 흡연부스는, 건물·공원의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설치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버스정류장 등의 길거리나 공공장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해주길 바람
-

또한, 흡연자와 주변 통행자 모두를 위하여 공기정화 시설을 강화하고 환기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 흡연부스 옆으로 지나갈 때 담배연기와 냄새가 지나치게 심해 길거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는 것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실제로 부스에 자리가 모자라 밖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도 목격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흡연자도 본인과 타인의 담배냄새를 맡거나 옷에 냄새가 배는 것을 꺼려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단순히 격리된 공간으로 만들기보다는 흡연자가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부 투시가 가능한 투명한 흡연부스에는 담배꽂초와 기타 이물질 등의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담뱃세로 걷는 세금의 규모에 비하여 흡연부스의 규모 및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므로 흡연부스의 수를 늘리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여성전용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응답,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암묵적 흡연구역에 담배꽂초용 쓰레기통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05

해외사례분석

- 1_흡연구역에 대한 국제기준
- 2_국가별 공공장소 흡연 제한 및 흡연부스
규정 사례

05 | 해외사례분석

1_흡연구역에 대한 국제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소비와 담배연기 노출로 발생하는 건강문제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바코 프리 이니셔티브’(Tobacco Free Initiative)를 제시하고,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발표하였다. FCTC는 다양한 국가가 모여 흡연과 간접흡연의 규모·패턴·결정요인·결과 등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도록 요구하며, 흡연에 관한 각종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는 WHO의 FCTC에 따라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흡연을 통제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표 5-1] FCTC에서 제시한 실외흡연실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FCTC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외흡연실 규정	① 시설물은 지붕을 포함하여 벽면의 50% 이상 개방을 기준으로 함 ②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최소화하도록 지붕 벽면의 구조를 설계 ③ 필요시에는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 가능

이와 관련하여 FCTC는 최근 실외흡연실 구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표 5-1>와 같이, 가이드라인은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설물은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 이상을 개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최소화하도록 지붕과 벽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더 효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구역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흡연구역’(Designated Smoking Room)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하는 지정흡연구역은 매우 엄격한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표 5-2>에 나타난 WHO의 TCFC에서 제시하는 6가지의 특성 중 최소 3가

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중에서도 5번과 6번의 기준은 꼭 충족해야 한다.

[표 5-2] FCTC에 따른 지정흡연구역(DSR) 규정

항목	내용
FCTC에 따른 지정흡연구역 (DSR)규정	① 폐쇄된 실내 환경이어야 함 ② 일반적으로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자동문을 갖추어야 함 ③ 비흡연자를 위하여 비운송구역에 마련되어야 함 ④ 적정 수준의 강제적인 통풍 기계장치를 갖추어야 함 ⑤ 적정한 수준의 도입 및 기능적 개구부를 설치하고, 내부에서 공기를 배출하도록 해야 함 ⑥ 주변지역을 참고하여 5파스칼 이상의 압력 상태를 유지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2017년 서울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흡연구역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 5-3>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 설치되는 흡연구역은 WHO의 기본협약,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의 설치 원칙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공기정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붕을 포함한 벽면 50%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완전폐쇄형 시설물은 이용자의 간접흡연을 발생시키므로 설치가 불가하나, 금연홍보문구를 표시하거나 도시미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5-3] 서울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2017)

항목	내용
서울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① WHO 기본협약,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시 및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②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흡연구역 설치 원칙 및 세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③ 서울시 금연정책의 장기적 목표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 ④ 시설물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효과적이고, 담배연기가 잘 배출되도록 설계 - 완전 폐쇄형 흡연실은 이용자의 간접흡연을 발생시키므로 설치 불가 - 지붕을 포함한 벽면 50% 이상을 개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금연 홍보문고를 표시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_국가별 공공장소 흡연 제한 및 흡연부스 규정 사례

1) 영국

영국 글래스고우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흡연구역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회는 흡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고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의회가 제안한 법령을 살펴보면, 흡연구역의 크기·면적·수용력·지정된 공공장소의 인구 수용량 등을 모두 고려한 기준을 시에서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에서 규정한 장소 외의 공공부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담배연기와 담배 구성성분의 연기, 혹은 그러한 연기의 조합물을 대상으로 최대 허용 노출 수준과 노출 기간이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흡연공간을 표시하는 시설물의 디자인·크기·시설물의 수와 위치 등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내부에 설치된 재떨이의 디자인, 입구와 출구의 담배연기 처리 시설, 환기 및 공기정화 시설의 공급·설계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정하고 규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래스고우시는 FCTC에서 제시한 지정흡연구역 규정에 따라 바닥의 50% 이상이 실질적으로 밀폐되도록 권고하고, 실내 직장 금연 규정 가이드라인 (Code of Maryland Regulation)에 따라 단단한 벽 및 천장, 폐쇄적 도어, 옥외로 직접 배출되는 환기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람, 즉 명시된 흡연부스 외의 장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였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FCT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소유의 지정흡연구역(DSR)을 오차드거리에 지정하였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정흡연구역은 총 5곳으로⁴⁾, 최근 오차드타워 외부의 지정흡연구역에는 <그림 5-1>과 같이 개방형 흡연부스 형식의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며 추후에는 Far east Plaza의 지정흡연구역에도 흡연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림 5-1] 싱가포르 오차드거리에 설치된 흡연부스

4) 싱가포르 오차드거리에 지정된 5곳의 정부 지정흡연구역은 Orchard Towers, Far East Plaza, Summerset MRT station, Cuppage Terrace, The Heeren에 위치하고 있음.

싱가포르 오차드거리의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 금지 조치는 싱가포르 내 흡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오차드 거리의 지정흡연구역 중 흡연부스가 설치된 2곳은 정부에서 정한 5곳의 지정흡연구역 중 흡연자가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싱가포르는 흡연구역을 지정과 함께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오차드거리에서의 흡연을 전면 규제하였으며,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으로 처음 규제 대상이 된 사람에게 구두경고를 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오차드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8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본격적인 집행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흡연구역 지정은, 흡연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흡연구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형 금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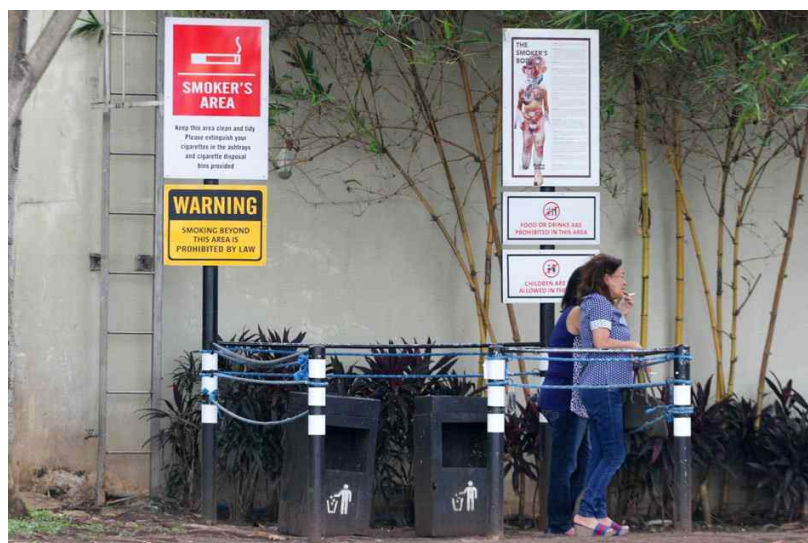
3) 필리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전국의 길거리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26호를 발표하고, 흡연의 통제와 더불어 지정흡연구역(DSA) 규정을 강화하였다.

행정명령 제26호에 따라, 필리핀에서는 밀폐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을 목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DSA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매우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DSA는 다른 구역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환기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출입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환기시스템 앞 10m 내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명령에 규정된 학교, 청소년 활동 센터, 엘리베이터, 병원 등의 구역에는 설치될 수 없다. 또한, DSA와 그 외 구역 사이에는 일정한 수준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DSA에 출입할 수 없다.

[표 5-4] 필리핀 지정흡연구역(DSA) 설치 규정

항목	내용
필리핀 지정 흡연구역(DSA) 설치 규정	① 폐쇄된 구역에 있는 DSA는 DSA에서 건물 금연구역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도록 완벽하게 밀폐한다. ② DSA는 출입구 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혹은 공기 출입구 앞에서 10미터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③ DSA와 비흡연구역 사이의 완충지대는 건물 총바닥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건물 또는 이동구역 내에는 하나 이상의 DSA가 있어야 한다. ⑤ 폐쇄구역 혹은 그 완충구역 내에 있는 DSA의 환기시스템은 나머지 건물 혹은 이동에 사용되는 모든 환기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⑥ 미성년자는 DSA에 출입할 수 없다. ⑦ DSA에는 흡연구역 간판, 담배사용에 대한 건강 경고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DSA는 다음과 같은 장소 혹은 그 부근에 설립될 수 없다. - 학교, 대학, 유스호스텔 및 미성년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같은 청소년 활동 센터 - 엘리베이터 및 계단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공립 및 사립 병원, 기타 의료시설의 건물 및 부지 내 - 음식준비 구역



[그림 5-2] 필리핀 지정흡연구역 모습

06

정책제언

- 1_흡연부스에 관한 시민의 요구
- 2_분리형 금연정책으로의 전환

06 | 정책제언

1_흡연부스에 관한 시민의 요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흡연구역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흡연자가 적절한 흡연공간을 찾기 어려워 대부분 길거리 등의 개방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현재 설치된 흡연부스 또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위생관리 및 공기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뿐 아니라, 이미 서울시 내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다수의 시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흡연부스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이용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의 42.1%가 흡연부스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다수는 흡연부스가 외부와 제대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흡연부스의 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흡연자는 흡연부스 수의 부족과 공간의 협소함, 미흡한 공기정화 능력, 비위생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흡연부스 이용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부스의 위생적 관리와 홍보를 바탕으로 흡연자의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시민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바와 같이 흡연구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금연구역 외의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를 ‘기본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 대부분은 흡연구역의 법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흡연구역의 추가 설치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 흡연구역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흡연구역 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이 흡연구역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이

흡연구역 외 공간, 즉 외부와의 분리 혹은 밀폐 여부인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_분리형 금연정책으로의 전환

시민의 흡연부스 관련 법적 규정 확립 및 설치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먼저 흡연구역의 설치·관리 전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흡연부스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흡연구역 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흡연부스의 설치·관리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법령에 근거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명확한 분리를 시행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서울시의 흡연정책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흡연부스 설치 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부스 내 밀폐수준과 내부 공기정화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도 그 위생과 공기정화 수준에 불만족하는 실정이다. 대다수 시민이 흡연부스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이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민은 국제기준과 달리 ‘밀폐형’ 흡연부스의 수요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흡연부스는 밀폐형으로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설치하는 흡연부스는 개방형을 설치하는 등 설치 장소에 최적화된 유형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흡연부스의 설치 장소와 이용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되도록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 제시된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일부 흡연부스는 이용률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부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흡연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무조건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홍보하고, 흡연부스 외부의 공공장소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더욱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현재와 같은 금연 위주의 흡연정책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흡연구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담뱃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흡연부스의 수를 늘려 주요 중심가에 설치·관리하는 등 ‘분리형 금연 정책’을 시행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서울시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봉수, 2013, “국내 미술시장 현황 연구: 미술시장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경영관리연구』, 제6권 제1호, pp.27~49.
- 김봉수, 2015,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국내 미술시장 현황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4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5b, 「2015 뮤지컬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5c,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전고필, 2006, “문화의집 경영과 네트워크”, 『예술경영연구』, 제9집, pp.1~19.
- 최연식변혁, 2014, “<양상블 디토> 관객세분화에 따른 관람형태를 중심으로 본 새로운 클래식 음악 관객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32, pp.67~91.
- 최종화, 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STEPI Insight』, 제143호.
- 최종화·이광호·서지영·김선자·이상훈·김병건, 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상연·손병호, 2010,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참여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3권 2호.
- Center for Clean Air Policy, 2013, *Encouraging Demand-side Energy Efficiency through the Eco-Point Program*, Center for Clean Air Policy.
-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OECD Publications.
- OECD, 2004a, *Evaluating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How to Assess What Works among Programmes and Policies*, OECD Publications.
- OECD, 2004b, *New Forms of Govern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OECD Publications.

Studenski S., Perera S., Patel K. et al., 2011, “Gait Speed and Survival in Older Adults”, *JAMA*, vol.305, no.1, 50~58.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작은연구 좋은서울 18-09

시민호흡권 개선 위한
흡연부스 운영방안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10월 2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